

호흡기병의 예방대책



김 기 수

<천호부화장업무부장·수의사>

1간들이 겨울철이 되면 감기와 같은 호흡기병이 많듯이 닭에도 호흡기 병은 특히 많이 나타난다. 호흡기 병이란 그 원인이 많으나 체내의 호흡기 계통 즉 콧물(鼻), 비강, 구강(口腔), 후두(喉頭), 기(喉), 기관지, 폐 및 기낭(氣囊)에 일어난 이상(異狀)을 총괄적으로 붙인 명칭이다. 닭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병발생의 주원인이지만 사양관리와 영양 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호흡기관은 그 자체의 발병기전(發病機)이 복잡하고 병종류도 여러가지로 많아 단일 감염이 아닌 혼합 감염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이며 치료 대책 또한 백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좀 더 철저한 방역계획을 세워 사전 예방대책에 임해야 한다고 믿는다.

호흡기 병의 종류

鼻腔)에서 기관에 이르기 까지를 상부기(氣道)라 부르는데 이 부분에 흔히 일어 나는 병으로는 전염성 코라이자 C.R.D(단성호), 가금콜레라, 뉴캐슬병, 점막형계두, 전염성 후두기관염을 들 수 있다. 후 기관지에서 폐 및 기낭에 이르기 까지는 하부기도에 많은 질병으로는 상부기도에서 발생한 병이 이곳으로 파급되어 발병되는 의인성 폐염, 육종(Rous 肉腫) 등이 있다. 호흡기병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어 혼동

하기 쉬운 질병으로는 추백리, 가금페스트, 신경형백혈병등을 들 수 있겠다.

3. 호흡기 병의 초기징후

아무리 급성형 질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 아침에 전계군이 쓰러지는 예는 드물고 주의깊게 관찰하는 우리들에게 여유있는 경종(驚鐘)을 울려준다. 그러므로 항상 닭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하지 말 것이며 더욱 악화되기 전에라도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로 억제시켜야 할 것이다. 징후가 나타나면 어떤 질병일 것인지 하고 단정을 내리기 앞서 호흡기병의 공통적인 초기 징후를 참조하신 후 전문수의사의 처방을 기다림이 올바른 방법이다.

① 개구호흡(開口呼吸)

여름철 더위로 인한 열사병 외에 다른 질병으로 개구호흡을 하는 예는 드물고 주로 호흡기병이 발생시 호흡기관에 나타나는 병변으로 말미암아 정상호흡에 장애를 받으므로 목을 길게 빼고 이따금 입을 벌리고 호흡하게 된다.

② 비즙(鼻汁)

사람과 같이 닭도 초기엔 콧물을 흘리게 되므로 콧구멍에 사료가 묻어 지저분한 인상을 주게 된다.

③ 기성(奇聲)

하루 관리를 끝내고 철창을 담은 후 피로를 풀고자 가만히 자리에 누웠노라면 쾅-쾅-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고요한 적막을 깨뜨린다. 무척 듣기 거부한 피성이지만 초기 한두마리를

○ 22일령 : 제두 1차 접종(1침, 날개의 얇은막)

○ 42일령 : 제두 2차 접종(2침)

○ 80일령 : 뉴켓을 3차 사육 1.0cc접종(근육)

이후 뉴켓슬은 3~4개월 마다 1.0cc씩

이 후 성제시 케이지로 옮길 때는 약 70~80일령에서 실시함이 좋다.

⑦ 사양관리에 유의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저항력을 기를 것

특히 겨울철엔 변질될 우려가 없을거라고 한꺼번에 많은 사료를 들어 놓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이는 곰팡이성 폐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니 주의해야 할 일이다. 또한 사료중에 호흡기병과 관계가 깊은 것은 피부와 호흡기관 접촉을 강하게 하며 외부로부터 병원체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병성인자(抗病性因子)인 비타민 A이다. 이는 산화로 인하여 그 역가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제품중의 함유여부와 제조일자 및 저장 사용법등에 주의 하여야 한다.

⑧ 기 타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는 닭을 살찌게 하는 주요인임을 인식하고 최소한 주 1회정도는 음수 소독을 실시함이 필요하다. <다음호에 계속>□□

<광고>

존경하는 부화업자 여러분 !

오늘도 전국에서 끊임없이 한국가금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선배, 동지 여러분! 그간 우리는 정부시책의 일환인 축산업 진흥에 적극 협력하여 분투 노력한 결과 지적 수준으로는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발전을 보았고, 양적 수준으로는 국민소비 추세를 상회하여 생산 과잉이 일년에도 몇번씩 반복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양계경영 형태는 날로 복잡 다단해져가고 있습니다.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추세는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를 두지않은 일개인의 판단 만으로는 예측을 불허하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생산과잉으로 양계계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질병역시 예측할수 없으리만치 증가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난문제들을 헤쳐내고 있으면서도 이대로 방관만 할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몰소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어야하는 문제들이므로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우리끼리 토의해 봅시다.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똑같은 발전을 위하여 흥금을 털어놓고 속의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3월 22일은 사단법인 한국 부화협회의 임시총회 이오니 등록된 부화업자나, 미등록업자나, 또 미가입업자를 불문에 불이고 종란 1,000개 입란 능력을 가진 부화업자나 100단계 능력을 가진업자를 막론하고 전원 참석 하여서 기탄없는 토론의 광장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그간 우리가 생산한 초생추는 생산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과 연결되며 이들 초생추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채널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생추의 과잉, 또는 부족현상으로 악순환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반 양계가에게 지탄의 대상이되고 위신이 땅에 떨어졌으며, 질적 경쟁을 해야될 시기에 양적 경쟁만 해 온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우리각자가 생산한 병아리가 전체 생산의 몇퍼로나 되는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집을 지어도 기초공사를 하지않고 지었습니다. 기초없는 공사는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매일 생산되는 병아리수는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라도 매일 생산되는 병아리 숫자를 조사하여,

- 1, 생산의 과잉이나 부족이 없겠끔 미리 막아야겠고,
- 2, 사료를 다루는 분이나 기타약품, 기계제작하는 분에게 도움을 주고,
- 3, 행정을 담당하는 분에게 지침을 주어 추축이 아니고, 정확한 기반위에 행정할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 4,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방향 설정과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기구로서 협회내에 통계 조사위원회와 생산조절 위원회를 발족하였사오니 절대적인 이해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1. 2월 일

사단법인 한국 부화 협회
회장 이 계 조